

“H100 웃돈 줘도 못구해” ... IT기업 ‘발동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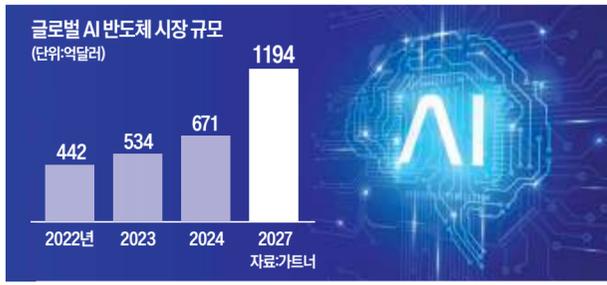
〈엔비디아 AI집〉

초거대 AI 개발 차질 현실화

생성 인공지능(AI)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초거대 AI 개발에 필수적인 엔비디아 칩셋의 품귀 현상이 접입가경이다.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단계를 지나 원하는 물량을 제때 구하기 불가능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엔비디아 칩셋을 얼마나 빠르게 확보하는가에 따라 AI 기술 개발이 좌우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웃돈 내도 H100 확보 어려워”
25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초거대 AI 개발에 필요한 엔비디아의 고사양 칩셋인 H100, A100의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초거대 AI를 보유한 한 국내 IT 기업 관계자는 “돈을 더 낸다고 해도 물건을 확보하기 힘들다”며 “칩셋 확보 속도에 맞춰 AI 기술 개발과 서비스 전략을 세워야 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생성 AI 서비스를 위해 요구되는 초거대 AI를 개발하려면 고성능 AI 칩셋이 필요하다. 오픈AI의 최신 초거대 AI ‘GPT-4’를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엔비디아의 A100 1만 개가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A100 1개의 가격은 1만달러



엔비디아 고성능 칩셋 품귀 TSMC “올 생산예약 이미 끝”

IT기업들 자체 칩 개발 선호 MS, 내달 ‘아테나’ 공개 예정 구글·오픈AI도 독자개발 나서

(약 1350만원) 수준이다. 최신 모델인 H100은 A100보다 세 배 이상의 성능을 내는데 가격은 개당 4만달러(약 5400만원) 이상이다.

엔비디아는 이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시장의 상당수를 차지한 AMD의 칩셋은 주로 연구소 등에

실험용으로 납품하고 있다. 사실상 엔비디아가 시장을 독차지한 것이다.

생산을 늘릴 수도 없다. 엔비디아의 H100, A100 등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 대만 TSMC가 늘어난 주문량을 맞추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 최고 사양 제품인 H100의 경우 올해 55만 개를 생산할 계획이지만 이미 예약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는 “AI 칩셋이 타약보다 구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업계 생태계 장악한 엔비디아
글로벌 빅테크는 물론 국내 IT 기업도 엔비디아의 대안을 찾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공급을 기다리다가 다른 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한 기업의 진출도 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세계 AI 반도체 시장은 지난해 442억달러(약 60조원)에서 2027년 1194억달러(약 161조원)로 두 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음달 열리는 ‘이그나이트’ 콘퍼런스에서 자체 개발한 AI 칩셋 ‘아테나’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챗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모델(LLM) 구동에 최적화된 칩셋이다. 구글은 2016년 머신러닝에 특화된 TPU1 세대 모델을 시작으로 꾸준히 자체 AI 칩셋을 개발해왔다. 지난 8월 최신 버전인 TPU v5e를 공개했다. 오픈AI 역시 자체 칩셋 개발을 검토 중이다. 한국에서도 사피온, 리벨리온, 퓨리오스AI 등 팹리스 기업이 AI 칩셋을 개발 중이다. 엔비디아를 대체하려는 시도가 성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AI업계 관계자는 “AI 모델은 학습과 추론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 학습 영역에서는 엔비디아를 대체하는 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슬우 기자

미래산업 바꿀 양자기술 국무총리가 직접 챙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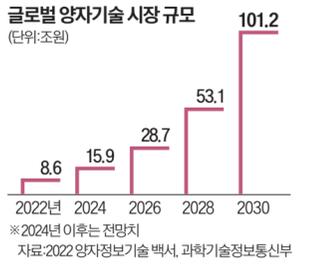
6개 부처 참여 양자기술특위 전략·조정·확대 개편

국가안보와 미래 산업 판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되는 양자기술 관련 정책을 국무총리가 총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 대통령) 양자기술특위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양자특위는 과기정통부 산 업통상자원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방위사업청 중소기업부 등 6개 부처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이 특위를 앞으로 종합계획을 세우는 양자전략위와 기술 가치를 따지는 양자조정위로 확대 개편한다.

양자전략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해 24일 공포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법’에 따라이다. 이 법은 ‘양자역학적 특성에 기반한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정보를 생성·제어·계측·전송·저장·처리 하는 기술’을 양자기술로 정의하고 양자컴퓨터·통신·센서 등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자컴퓨터는 AI 연산, 신약 후보물 질 발굴, 배터리 설계, 우주선 개발 등 분야에서 현존 슈퍼컴퓨터보다 수억



배 이상 빠른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양자특위는 스텔스 전투기나 잠수함 등 보이지 않는 대상을 감지할 수 있어 군사적 가치가 무궁무진하다.

정부는 양자기술을 우주 등 여러 공공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장비 테스트베드 구축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영환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은 “양자특위가 출범한 2021년과 비교하면 과학기술계 내 양자기술의 위상과 인식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아졌다”며 “양자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도입해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게 정부가 힘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글로벌 양자기술 시장 규모는 지난해 8조6656억원에서 연평균 36% 성장해 2030년 10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혜성 기자

LG화학, 美에 ‘차세대 기술’ 거점

북미 이노베이션센터 개소 배터리 소재 등 기술개발 주력

LG화학이 미국에 연구소인 ‘북미 이노베이션센터’를 열고 차세대 배터리 소재, 친환경 소재, 신약 개발 등 3대 신성장 동력과 관련한 미래 기술 확보에 나선다.

LG화학은 미국 조지아주에 북미 이노베이션 센터 개소식을 열고 조지아공과대와 신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5일 발표했다. 배터리 및 친환경 소재 분야에서 선도 기술 연구가 활발한 북미에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다.

LG화학은 북미 이노베이션센터를 통해 현지 기술 조사, 과제 개발부터 지역 대학 및 국립 연구기관 등과 공동 연구를 수행한다. 센터를 확대 개편해 2025년까지 독립 시설을 갖춘 북미 핵

심 연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조지아공과대는 기초 기술 연구부터 기술 상용화, 혁신 비즈니스 모델 개발, 인재 양성 등에서 협력한다.

LG화학이 미국 테네시주 양극재 공장, 일리노이주 바이오플라스틱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만큼 현지 생산 거점과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올초엔 미국 항암신약 개발 기업인 아베올을 인수했다. 차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북미 시장 점유율도 높일겠다는 계획이다.

LG화학은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인 조지아공과대와 함께 육성할 인재로 북미 이노베이션센터에 채용하기로 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3년 연속 미국에서 직접 ‘BC(비즈니스&캠퍼스) 투어’를 진행하는 등 인재 발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엔 현지 연구소를 차려 우수 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김형규 기자



네이버클라우드, 몽골 학교에 웨일북 지원
네이버클라우드는 몽골 교육과학기술부 추진하는 ‘디지털 클래스룸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24일 발표했다. 몽골 72개 초·중·고교에 웨일북, 스피어스, 웨일북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양측 관계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네이버클라우드 제공

포스코DX ‘비전 AI 솔루션’ 야생동물 로드킬 막는다

포스코DX는 인공지능(AI) 기반 야생동물 ‘로드킬’ 예방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도로 일정 구간에 라이더 센서와 CCTV를 설치해 도로로 뛰어드는 야생동물을 감지한다. 고라니, 고양이 등 어떤 동물인지도 판독해 해

당 구간 전광판에 띄워 운전자에게 알려준다. 영상 내 행동을 인식하고 객체를 탐지·분석하는 포스코DX의 ‘비전 AI 솔루션’ 기술이 들어갔다.

포스코DX는 경남에서 전남 여수까지 걸쳐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상주~금산지구 350m 구간에서 이 시스템 성능을 시험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과 협력해 다른 공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성 기자

“호텔 고객·직원 맞춤형 원스톱 업”

▶ 오픈 후기

두왓 ‘스마트호텔 플랫폼’

“호텔은 글로벌 표준화가 잘 된 업종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으로 작동하는 게 많아 디지털 방식을 접목했습니다.”

스마트호텔 플랫폼 두왓 김주영 대표는 25일 자사 서비스(사진)를 이같이 소개했다. 두왓은 한 플랫폼 안에서 호텔 고객과 직원, 운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국내외 모바일 체크인 등 고객을 위한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두왓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호텔리어 앱과 관리자 전용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최형창 기자



호텔이 지역 상권과 상생할 수 있도록 객실 내 태블릿과 모바일 앱에 근처 맛집과 관광지를 제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주변 맛집과 관광지의 매출 증대를 도우며 광고비는 두왓과 호텔 측이 공유한다. 김 대표는 “기존 업체들의 서비스는 너무 파편화돼 있는데 이를 하나로 연결해 통합한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두왓은 글로벌 진출 시동도 걸고 있다. 이미 일본, 베트남뿐 아니라 이집트와 미국까지 계속 접촉하고 있다.

<p>부동산 광고문의 02-365-3000</p>	<p>★서울 유명관광 고수익(4.5%)★ 더블역세권 도보 1분 일방상업지역 / 신축급 보 9억 / 월 4,500만 (관리비 별도) 매가 150억 ⇒ 130억 02)3448-4425 무병산 사례</p>	<p>급건축허가특 토지(매) 수지구 축전동 631.2㎡ 반경 1km 내 18,500세대 외 동탄축전대로 인접 코너 토지 관장정촌 : 자용차 공원 및 식원 매매가 : 47억 주인직 010-7109-6307</p>	<p>매디컬 빌딩 신축 1년 내과/외과/피부 성형외과/레이저/약국 1층 용도 10만 수익률 7% / 월임대료 821만원 (보증금 9억2,000만원) 용차 8억5,000만원 대지 1,500㎡(450) / 건물 5,000㎡(1500) 총 매매가 150억 02)2267-1008</p>	<p>★수익6% 단칸도너츠 빌딩★ 대480㎡ / 건1,550㎡(신축) ◎ 우량 입자임질, 독립상권 ◎ “황리산상권, 대포천, APT정원인” 보 8억2천만 / 월2,400만 매가 62억 02)2033-0601</p>	<p>(경쟁가 89억)대출 60억 이상 ★하남 멀티플렉스 영화관★ 보 5억 / 월 3,500만(vat 별도) 매가 80억 02)3448-4425 (부동산 사례)</p>	<p>국내 불황과 전혀 상관없는 태국 2천만 관광객 전용 bts카드 oem 일부 부족분 1-2억 투자 1분만 모심 3년만 투자금 내면 30%수익 보장 연평균 10%수익률 보장 010-9661-5419</p>	<p>잔고증명 법인설립 어음할인 담보자금 010-2157-4600</p>
--	--	--	---	--	--	---	---

온라인클래스
경제통화에 흔들릴 없는
물류유통시장의 트렌드를
알려드립니다

2023.10.31(화) 오후 2시~5시

물류센터 운영설계 현황과 트렌드

시간: 10월 31일(화) 오후 2-5시
교육장: 한경아카데미 교육장

주최: 한경아카데미
강사: 김사소
3인 동석시 10만원

**합병에 따른 재권자
이익재출공고 및 주권재출공고**
2023년 10월 25일 개최된 “갑” 회사 및
“을” 회사의 인수합병에 따른 합병
합병 후 “갑” 회사는 “을” 회사의 주
주권을 승계하여 계속되고, “을” 회사는 해
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본 통지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 재권자는 이 공고 게재 2일 후
부터 2023년 11월 27일까지 30일 이상
본 재출공고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을” 회사
의 주주 및 동등자는 이 공고 게재 2일 후부터
2023년 11월 27일까지 주권을 “을” 회사에
재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6일
“갑” (합병법인)
주식회사 피델리티에이치엔그룹
총행사로 한경아카데미 117, 7층
(서울, 코엑스동)에
공통대인사: 홍성준, 이희진
“을” (피해법인)
주식회사 외우물젯물유니버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50길 21, 181048
(신남동, 코엑스동)에
공동대인사: 박기을, 이희진

사채 조기상환 공고
케이비모토서비스(유한회사) (유)
제1-24회, 제1-25회 무보증사채 /
1-2회 무보증사채
제1-24회 잔액: 100억 / 잔액: 100억
제1-25회 잔액: 100억 / 잔액: 100억
1. 회사명: 모회사
(주)케이비모토서비스(유한회사) (유)
2. 회사명: 유부: 케이비모토 (Call Center)
3. 회사명: 모회사

2023년 10월 26일
케이비모토서비스 유한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 3층 (문서송)
홍성준 이희진

해산 및 재권 신고 공고(1차)
본 회사는 2023년 10월 25일 개최된 임시총회
결의 결과로 2023년 10월 25일자로 해산하기로
결의하고 해산에 이의가 있는 재권자는 이 공고
게재 후 2023년 11월 27일까지 30일 이상
본 재출공고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회사
의 주주 및 동등자는 이 공고 게재 2일 후부터
2023년 11월 27일까지 주권을 본 회사에
재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6일
주식회사 케이엔지엔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6, 3층 301호
(양재동, 코엑스동)에
홍성준 이희진

해산 및 재권 신고 공고(1차)
본 회사는 2023년 10월 2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하고 해산에 이의가 있는 재권자는 이 공고
게재 후 2023년 11월 27일까지 30일 이상
본 재출공고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회사
의 주주 및 동등자는 이 공고 게재 2일 후부터
2023년 11월 27일까지 주권을 본 회사에
재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6일
주식회사 나우브이엔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안로 110, 4층 (무병산)
신사소 이희진

사채 조기상환 공고
타밀드제오인프라(유한회사) (유)
제1-1회 무보증 사채
잔액: 100억 / 잔액: 100억
1. 회사명: 모회사
(주)타밀드제오인프라(유한회사) (유)
2. 회사명: 유부: 타밀드제오 (Call Center)
3. 회사명: 모회사

2023년 10월 26일
타밀드제오인프라 유한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 3층 (문서송)
홍성준 이희진

**KAIST 정재승 교수 추천
실패로부터 재도약하는 후회의 기술**

“후회하는 삶은 왜 더 성공적일까?”

출간 즉시 27개 언어 번역 전 세계 베스트셀러

세계적인 비즈니스 사상가,
다니엘 핑크가 밝힌 인간 성장의 비밀

다aniel 핑크 후회의 재발견

다aniel 핑크 후회의 재발견